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00회

'진심' 담아 200회, 500회까지 간다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연출: 김동욱, 김명하/이하 <동상이몽 2>)이 6월 24일(월) 100회를 맞았다. <동상이몽 2>는 2017년 7월 10일 첫 회를 방송한 이래 99번 동시간대 2049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많은 예능이 생겼다가 몇 회를 못 넘기고 사라져가는 요즘 보기 드문 일이다.

그동안 추차현·우효광, 장신영·강경준, 한고은·신영수, 최수종·하희라, 인교진·소이현 등 18커플이 <동상이몽 2>를 통해 그들의 결혼생활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MC 김구라, 서장훈, 김숙은 싱글의 시각으로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며 찰떡케미로 프로그램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6월 18일(화)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100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영인 예능 부분부장 겸 1CP는 "기쁨이 이를 데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인 CP와 김동욱 PD는 프로그램이 100회까지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을 '진심'으로 꼽았다. 김동욱 PD는 "부부 관찰 예능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출연자 부부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차별점이다"라고 말했다. 최 CP는 "예능적으로 갈등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볼 때 일일연속극처럼 잔잔히 가는 게 좋다. 갈등이 있어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부부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시청자들이 '나는 어쩐가'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섭외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최 CP는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섭외를 처음부터 반기는 연예인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면 통한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진실성이 있는 커플만 출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동상이몽 2>는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 출연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친정집을 찾듯 다시 출연한다. 최영인 CP는 이를 '패밀리십'이라고 표현한다. 100회 특집은 그런 의미에서 '홈커밍 데이'로 기획했다. 프로그램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추차현·우효광 부부가 오랜만에 출연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그들의 비공개 결혼식과 그들의 2세인 바다의 모습을 방송 최초로 공개했다. 특집 녹화 날 이들의 VCR을 보고 제작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들의 결혼까지의 과정과 위태로웠던 출산 과정을 가족의 마음으로 지켜보았기에 나올 수 있는 눈물이다.

최 CP는 "부부 관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을 출연자들이 해주어서 우리도 사명감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이 오래가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도 한다. 구성이 바뀌는 것보다 인물이 바뀌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커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진심을 담아 방송하겠다. 다양한 커플을 만나면서 우리도 배운다. 시청자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200회, 500회를 맞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맺었다.

<동상이몽 2>는 100회 특집을 103회까지 4회에 걸쳐 방송한다. 101회부터 103회는 한 시간 앞당겨 월요일 밤 10시부터 방송하는 등 확대 편성한다. 여기에는 한고은·신영수 부부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노사연·이무송 부부가 부부 합동 버스킹을 하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다.





모비딕, 하반기에는 '연예인 MCN' 론칭한다

모비딕 3주년 행사, 플랫폼 및 방송 관계자 200여 명이 찾아 성료



정승민 전략기획실장



박재용 모바일제작사업팀장



SBS의 모바일 브랜드 모비딕이 론칭 3주년을 맞았다. 6월 20일(목) 위워크 여의도역점에서 열린 3주년 행사 겸 네트워킹 파티 행사장에는 SBS 임직원들과 주요 플랫폼, 제작사, 연예기획사, 광고대행사, 프레스, 출연자 2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2016년 6월 론칭한 모비딕은 지상파 방송사가 론칭한 모바일 브랜드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리드해 왔다. 그간 <양세형의 쏘터뷰>, <박나래의 복불쇼>, <아이돌시티> 등 웹예능과 <비정규직 아이돌>, <맨발의 디바>, <농부사관학교> 등 숏폼 드라마를 아우르는 70여 개 프로그램, 1,000여 개의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행사장에서는 <바 페르소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론칭하는 신규 콘텐츠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서인영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 페르소나>는 서인영과 미쓰에이 출신의 페이, 그리고 대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서욱이 매주 월, 수, 금 뷰티 바를 오픈하는 새로운 콘셉

트의 뷰티 콘텐츠이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가장 핫한 뷰티 트렌드를 전달한다.

모비딕이 하반기에 야심차게 론칭하는 '연예인 MCN'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MCN은 'Multi Channel Network(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인기 채널을 묶어서 관리 및 마케팅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1인 크리에이터 중심의 기존 MCN과는 달리, 모비딕은 이미 방송을 통해 인지도와 콘텐츠를 인정받은 연예인을 중심으로 MCN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복안이다. 3주년 행사장에서 홍경민, 손현수, 졸탄, 김성은, 이동엽, 1등 미디어, 웨이 등 유명 연예인과 방송인 출신 대세 크리에이터 등 10여 팀이 포함된 1차 라인업이 공개되어 기대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워너원 출신이자 AB6IX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대휘와 대세 웹드라마 <에이틴 2>를 통해 웹드 여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민아가 주연을 맡은 숏폼 드라마 <연남동 글로벌 하우스>가 공개되었다. 한국에 모여든 세계 청

춘들의 삶과 사랑을 그린 <연남동 글로벌 하우스>의 주연 이대휘와 강민아가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극 중 연남동 글로벌 세어하우스의 호스트 역을 맡은 이대휘는 "글로벌 하우스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청춘들이 만나 전개되는 이야기가 신선한 재미를 줄 것"이라며 드라마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행사 중에 모비딕 프로그램 <썸마이웨이> 주인공 제아와 치타의 깜짝 축하 무대가 꾸며졌다. 또 행사 막바지에는 박기홍 SBS 디지털사업국장의 행운권 추첨이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박재용 모바일제작사업팀장은 "3년 동안에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시장을 혁신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연예인 MCN은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큰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모비딕 연예인 MCN을 주목해 달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2019 상반기 SBS 희망내일위원회 개최



2019년 상반기 SBS 희망내일위원회가 6월 18일(화) 목동 SBS 사옥 지하 1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SBS 희망내일위원회 위원장인 SBS 박정훈 사장을 비롯해 자문위원인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최혁준 라임글로벌 대표,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 심석태 보도본부장, 전수진 편성실장 등이 참석

해 SBS 사회공헌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망TV SBS',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SBS 미디어그룹의 상반기 사회공헌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평가와 창사 30주년을 맞는 2020년 신규 사회공헌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SBS만의 색깔을 가진 새로운 사회공헌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방송사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성훈 기자, 김영광 PD, IOC '골든링 상' 수상



김영광 PD

김연아 선수

이성훈 기자

스포츠부 이성훈 기자와 SBS 플러스 김영광 PD가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고의 올림픽 방송에 수여하는 '골든링 상'을 받았다.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평창 투나잇>을 제작했던 이성훈 기자는 한국 시각으로 6월

23일(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골든링 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올림픽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차지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로부터 상을 받았다.

김영광 PD는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국제신호 제작을 총괄하여 '지속 가능한 올림픽 방송' 부문 동상에 선정됐다.

1976년 제정된 '골든링 상'은 IOC가 전 세계 올림픽 관련 방송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수여한다.



6월 28일(금) 밤 11시 10분 첫 방송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



신개념 수중 버라이어티 <그랑블루>가 6월 28일(금)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끝없이 펼쳐진 깊고 푸른 바다, 원시의 자연과 낭만이 살아 있는 곳 필리핀에서 물 만난 여섯 남자들이 지구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뭉쳤다.

마린보이 박태환의 첫 스쿠버다이빙 도전!

<그랑블루>에는 각 분야의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맹활약 중인 박태환의 출연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다. 박태환 역시 스쿠버다이빙은 처음 도전하는 것으로, 수영장과는 달리 파도와 조류의 변수가 많은 바다에서도 과연 그가 '마린보이'의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마성의 아재 파탈' 이종혁, '아나테이너' 한석준, '첫 예능 출격' 최성원, '비주얼 허당' 오스틴 강, '비타민 아이돌' 안형섭이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가족처럼 끈끈한 케미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여섯 남자의 해양 생태계 복구 프로젝트

여섯 남자에게 내려진 특명,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라!" 지금 바다는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 해양 오염으로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해양 생태계의 위기를 떠안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섯 남자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 특히, 바다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바다 생물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펼쳤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척박한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지가 <그랑블루>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다. 역대급 스케일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복구를 위한 여섯 남자의 피, 땀, 눈물이 모여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낱알이 공개하며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동고동락 고군분투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 그중 <그랑블루>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곳은 필리핀의 숨겨진 비경 카모테스 섬이다. 이름조차 생소하고 낮은 미지의 섬 한가운데에서 바다를 위한 특명을 완수해야 하는 여섯 남자. 설상가상으로 예고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속출한다. 띄약별이 내리쬐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여섯 남자의 동고동락 고군분투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바다의 나라 필리핀 카모테스에서 펼쳐지는 수중 버라이어티 <그랑블루>는 오는 28일(금)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인터뷰
이 사람



"결혼생활로 연애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 100회 맞은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김동욱 PD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1984년생, 미훈이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2012년 SBS에 입사하여 <힐링캠프>, <백종원의 삼대천왕>, <K 팝스타 더 라스트 찬스>의 조연출을 거쳤다. <동상이몽 2>는 2017년 8월 8회 때 공동 연출로 합류해서 2018년 2월부터 메인 연출을 맡았다.

100회를 맞은 소감은?

100회 녹화 날 그동안의 회차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복잡 미묘했다. 100회를 맞게 돼 영광스러운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새로운 커플이 올 때마다 새로운 방송을 하는 기분이라서 100회가 실감 나지 않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플은?

모든 출연자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추자현 우효광 커플이 단연 기억에 남는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 그리고 출산 후 직접 인터뷰까지 우리 프로그램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번 100회 특집에도 우리에게 결혼식을 모두 다 공개해 주셨다. 무척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다.

섭외가 가장 힘들었던 커플은 누구였나?

한고은-신영수 커플이다. 한고은 씨 같은 경우는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데다가 관찰 예능은 처음이라 걱정이 크셨다. 또 남편 신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일상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다. 여러 번 찾아뵙고 설득한 끝에 섭외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

100회까지 오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나?

가까이서 지켜보니 결혼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결혼생활도 연애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상이몽 2>가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비결은?

팀워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출연자는 물론 연출, 조연출, FD, 작가들 모두 끈끈하다.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자기 일이라고 여기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다. 함께한 모든 스태프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200회를 맞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더 새롭고 길게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화제성 있는 커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커플을 발굴, 섭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104회부터는 새로운 커플이 등장한다. 사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작
후기

“PD로 살아가길 참 잘했다”

- <SBS 스페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 이근별 PD

‘시사교양PD’로 일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나에게 ‘김용현(요한, 씨돌)’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다. 7년 전, 강원도 정선군 봉화차마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그를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처음 만났다. 그 후 방송과 관계없이 매년 휴가 때면 그를 찾았다. 세상의 속도에서 비껴간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나는 비로소 제대로 숨 쉴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가 되었을 즈음 김용현 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내가 악인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김용현 선생님은 전국의 요양원을 전전하셨다. 연락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2019년, 생애 첫 다큐를 만들 기회가 왔다. 7년간 미뤄둔 숙제를 해결해야 했다.

<SBS 스페셜>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씨돌, 용현’ 다큐멘터리는 처음부터 2부작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한 편으로 기획된 다큐였으나, 그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니 한 편에 담지 못할 만큼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2부작으로 늘렸는데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내보내지 못한 그의 미담은 거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할 정도로 많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한 가지는 할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지속해서 대가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가히 ‘신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서야 나는 김용현 선생님의 행동해온 양심과 침묵해온 선행,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일생을 살아온 ‘참사람’의 진짜 삶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삭막한 세상에, 그의 인생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다.

다큐가 방송되고 난 뒤, 깊고 잔잔한 울림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의 삶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난다. 통장 하나 없는 그를 위해, 오랫동안 그를 돌봐온 수녀님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만들어졌고, 일주일 만에 무려 7,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1,004원에서부터 1만 원, 5만 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전국 각지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수천 명 사람들의 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아직은 세상이 살 만함을 느낀다. 김용현 선생님이 30년 동안 써온 글 모음집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몇몇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관련 내용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분들

이 지지 서명을 해주셨다. 7월부터 김용현 선생님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제작하는 동안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SBS의 모든 분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 박상욱 CP님을 비롯해, 영상제작2팀 박혁 감독님, 정민균 선배, 시사교양본부 신용환 국장님과 박진용 선배, 아나운서팀 김태욱 국장님, 늘 든든한 편집기술팀 현민 형과 종편실, 녹음실 감독님, 제작CG팀 양소현 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면 오랜만의 휴가다. 정선의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김용현 선생님도 만나 볼 예정이다. 김 선생님께 <SBS 스페셜> 게시판에 쏟아진 방송 후기와 응원 댓글을 찬찬히 보여드리려 한다. 무척이나 행복해하실 그 웃음이 머릿속에 그려져, 빙그레 웃음이 난다. ‘PD’로 살아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요즘이다.

취재
후기

목포 팜투어에서 기소까지 - 손혜원 의원 취재 후기

- 보도국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 팀 김종원 기자

취재는 막힘이 없었지만, 보도 후폭풍은 거셴다. 보도에서 다루진 팩트와 상관없이, 보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유례없는 찬반 논쟁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보도 배경에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음모론이 횡행했다. 보도한 기자 입장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마음 편치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평소에도 목포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목포를 홍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문화재청 대상 국정감사를 아예 목포 현지에서 열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문체위 위원들을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하기도 했다. 창성장은 그 당시 손 의원이 “아는 지인들을 설득해 건물을 사들이게 해 차린 곳이다” 정도로 소개하고 홍보하던 곳이다.

이 국정감사 며칠 후 문화재청은 목포 구도심에서 언론 대상 팜투어를 열었다. 목포 구도심을 통째로 ‘문화재 거리’로 선정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이런 팜투어 소식을 접하고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 목포 팜투어에 참가했다. 그런데 실제 팜투어 코스는 기존에 안내된 것

과 달랐다. 계획에 없던 창성장이 코스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팜투어를 안내하던 문화재청 공무원은 기자에게 손 의원이 사들인 적산가옥이 더 있다는 얘기도 던지시 해주었다. 서울로 돌아와 곧바로 일대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기 시작했다. 한 부 때는 데 700원인 등기부 등본을 200만 원어치 가깝게 떼가며 손 의원과 연관된 부동산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창성장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단순히 손 의원 지인이 아닌, 손 의원 조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정작 이 조카는 집으로 찾아가 취재진에게 “자신은 명목만 빌려줬을 뿐, 군대에 있어서 건물 매매 과정은 전혀 모른다”는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해 충돌에 더해 차명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끝까지 판다’ 팀은 고위 공직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올 1월 이른바 ‘손혜원 보도’를 내보냈다. 11월에 취재를 시작해 두 달 만이었다.

보도 이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5개월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수사 결과는 보도보다 더 나아가 있었다. 손 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미리 받아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고,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창성장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결론이었다. 매입한 부동산의 수도 취재진이 알아낸 것 보다 더 많았다. ‘끝까지 판다’ 팀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평소 ‘끝까지 판다’ 팀을 칭찬하던 동료 언론인이나 언론 단체 중 일부는 지난 1월 손 의원 보도 이후 ‘끝판’ 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비판이야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도 꼭지 수가 너무 많았다’라거나, ‘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부실 취재가 아니냐’는 등의 얘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고 서운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이 과정을 통해 배운 점도 많다. 이 역시 SBS 보도사에 한 줄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믿는다.

최종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끝까지 판다’ 팀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끝까지 팔 예정이다.



SBS M&C <고객가치> 특강 개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라!



SBS M&C는 지난 6월 10일(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객 가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SBS 미디어그룹 관계자와 SBS M&C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前) LG전자 글로벌 마케팅 담당 전무를 역임하고, 현재 Goldiran(이란계 유통회사)에 재직 중인 김종훈 부사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강사는 “고객 가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고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고객 가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고객 가치를 기능, 감성, 정신적 가치로 분류하면서, 이 가치들을 차별화 전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강 말미에는 “내부 자원 중심이 아니라 고객 가치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립하자”면서 모든 의사 결정에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가 빠른 전자산업에 종사했던 Goldiran 김종훈 부사장의 통찰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방송/콘텐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강의 참석자는 “미디어그룹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고객에게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